

광주 사직도서관, 겨울방학 독서교실 성료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5학년 독서력 향상을 위해 열렸던 광주 사직도서관의 겨울 독서교실이 막을 내렸다. (사진) 지난 24일부터 3일간 '영어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형 수업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독서교실의 색다른 재미를 느꼈다. 겨울 독서교실은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과 지적 능력을 키우고자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독서교실은 사직도서관 외에도 무등도서관과 산수도서관에서도 개최됐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재능기부센터 책방음악회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오고.' 통기타 반주에 맞춰 학창 시절 즐겨부르던 '연가'를 함께 합창하며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재능기부센터 책방음악회(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가 지난 27일 광주재능기부센터 융복합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사진) '긴 호흡의 나무들처럼'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특히 전문연주자는 아니지만 40~50년 실력을 닦아온 아마추어 고수들의 연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음악회에서는 소리꾼 고재성과 교수 박도영이 '심청가' 중 '심부사는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줬으며 진성인이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바리톤 박종이 '마중'을 들려줬다. 또 오봉렬이 클리리넷 연주로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들려줬으며 진성인·오봉렬·박종·고재성이 남성 4중창도 선보였다. 지난 2010년 아름다운가게에 헌책방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책방음악회는 1, 2월과 7, 8월 등 네 차례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애호가들을 초청해 행사를 꾸릴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민변 광주전남지부 집행부 선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사진, 이하 민변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2024년 제 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지부장 송창운(변시 2회), ▲사무처장 최기영(6회) ▲사무처장 김문석(7회) ▲사무처장 유한범(8회) ▲공익소송단장 박인동(3회) ▲공익소송단 부단장 이소아(사법연수원 38기) ▲회원사업단장 류리(변시 4회) ▲회원사업단 부단장 송동근(11회) ▲연대사업단장 이광원(5회) ▲연대사업단 부단장 김환기(10회) ▲민변잡지 편집장 김수지(5회) ▲대의원 소병선(3회) ▲대의원 최명수(회).

인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전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서병교
◇1급 승진
▲재무관리처장 김서령 ▲디지털혁신처장 박재형 ▲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부산물산지역본부장 이수직
◇2급 승진
▲조직관리부장 이재왕 ▲ESG경영부장 이순영 ▲수급정보부장 김신호 ▲보관관리부장 강인구 ▲두류부장 이윤석 ▲글로벌사업처 소속부장 정현철(교육과관)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푸드플랜지원부장 김민웅 ▲시장육성부장 정유진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정호
◇직위 승진
▲비축사업처장 이윤영 ▲글로벌사업처장 황도연 ▲식품산업육성처장 박근식 ▲농산물물류인도메시사업처장 이상길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미래사업협력부장 김준혁 ▲혁신성과부장 조인경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안전보건팀장 박성모 ▲빅데이터사업부장 김경화 ▲양념특작부장 유재혁 ▲글로벌거점지원부장 최정기 ▲수출성장지원부장 백유태 ▲식품수출부장 임희영 ▲푸드페어사업부장 신동희 ▲도매시장부장 박정만 ▲급식지원부장 박지화 ▲시장운영부장 전민형

보훈부, 이승만 유족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패 수여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왼쪽 셋째)이 지난 26일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패 수여식'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족인 조해자(머느라·왼쪽 첫째)·이병구(손자·왼쪽 둘째)씨와 문무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희망마켓 수익금 기부



광주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원장 주영미)은 최근 희망마켓 수익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아나바다 장터 '보듬이나눔이 희망마켓'의 수익금(941만 여원)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돌봄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 사랑의열매 제공>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1일 (음 12월 21일 甲午)
36년생 협조자는 보이나 진행은 지연된다. 48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60년생 분위기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72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84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친다면 뜻을 이루리라. 96년생 정산만 딱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6
37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9년생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장애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61년생 재원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73년생 파격적인 제의가 들어 올 수도 있다. 85년생 허황된 일이나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97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5
38년생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50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니 신바람 나게 되어 있다. 62년생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74년생 함성으로서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98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0, 89
39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51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63년생 하자가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5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87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99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7, 68
40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52년생 투명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될 수도 있다. 64년생 예견되는 대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76년생 익히 잘 아는 바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8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00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6, 63
41년생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53년생 조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희망찬 의욕으로 나아가면 풍성하게 얻으리라. 77년생 빈틈을 보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건을 날달이 살펴보자. 89년생 안정세를 취해야겠다. 01년생 억지라도도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90
42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54년생 걸치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66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처지이다. 78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90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루가 될 수도 있겠다. 02년생 지나친 경쟁심은 활동 반경을 축소시킨다. 행운의 숫자 : 29, 59
43년생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67년생 좋은 인연과 흐릿한 일이 있을 것이다. 79년생 순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할 만하다. 91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03년생 상부상조하라. 행운의 숫자 : 24, 58
44년생 끝까지 절제된 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56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자. 68년생 행동을 감아하지만 마음은 광범이 가 있다. 80년생 걸보 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 92년생 답답 하더라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판세이다. 04년생 빨리 봉합하고 붙인다. 행운의 숫자 : 44, 62
45년생 일부터 나서는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57년생 불편하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69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했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93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05년생 취지는 좋으나 무의익을 때까지 기다리자. 행운의 숫자 : 21, 67
46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왔던 바를 얻게 된다. 58년생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70년생 마음에 다치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82년생 초모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94년생 일도양단하여 대범하게 처리하라. 06년생 이치를 터득해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53
35년생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47년생 관행에 얽매어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59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71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83년생 논쟁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 95년생 내부에서 찾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7, 80